

인천시립극단 Incheon City Theater Company

프로필 작성

인천시립극단은 199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단된 공립극단으로서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인천 지역의 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있다.

인천 시민 모두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극장의 문턱을 낮추고, 저소득층 할인혜택이나 접근하기 어려운 관객을 직접 찾아가는 공연을 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 가장 소외된 청소년 연극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는 연극 만들기'와 같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에 삶의 중심을 세우는 공립극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 2021년 공연실적

(단위 : 건, 회, 명)

구 분	계	정기공연	기획공연(금요)
2021년	5/18	3/16	2/2
관람인원	4,422 (오)2,241 (온)2,181	4,212명 (오)2,031 (온)2,181	210

* 공연현황 총괄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계	5건 / 18회 / 온라인상영 2회			4,422명 (오)2,241 (운)2,181
2021.4.3.(토) ~4.11.(일) 소공연장 / 8회	제82회 정기공연 “십이야”	원작 : 셰익스피어 연출 : 임도완 예술감독 : 강량원 *출연진* 서좌백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태훈 이수정 서창희 김희원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	외모까지 매우 비슷한 남매 쌍둥이인 세바스찬과 바이올라는, 같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나 배가 난파된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일리리아라는 땅의 해안 각기 다른 장소에 떠밀려 겨우 목숨을 건진다. 두 사람은 서로 오빠와 여동생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하며 큰 슬픔에 빠진다. 여동생 바이올라는 신분을 숨기고 세자리오라는 남자로 변장한다. 그리고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오시노공작의 하인으로 들어가 빠르게 신임을 얻게 된다. 오빠 세바스찬 또한 가문 사이에 친분이 있는 오시노 공작의 집으로 향한다, 여동생이 남장을 하고 시종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1,352
2021.5.1.(토) ~5.2.(일) 회관 유튜브 극단 유튜브 온라인 상영		*스텝* 무대디자인 : 정승호 조명디자인 : 나한수 의상디자인 : 이주희 영상디자인 : 이수경 음악감독 : 김요찬 소품디자인 : 김소연 음향감독 : 유정화 분장디자인 : 채송화 홍보디자인 : 디자인컴퍼니 공연영상 : 남인천방송 사진촬영 : 유재형 조연출 : 박제영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오시노 공작은 그 마을 백작의 딸 올리비아를 몹시 사랑하여 청혼하지만 매번 거절당한다. 공작은 갓 들어온 시종 바이올라를 매우 신임하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데, 이는 여자처럼 생긴 예쁘장한 청년이라 호감이 갔고, 그의 훌륭한 언행이 믿음직하고 맘에 들었기 때문이다. 공작은 그러한 바이올라가 청혼심부름을 하는데 적격이라 생각하고 백작의 딸에게 심부름을 보낸다. 그러나 바이올라는 거꾸로 오시노 공작을 첫눈에 사랑하게 되어서, 공작의 청혼심부름을 하는 것이 매우 괴롭기만 하다. 설상가상으로 심부름을 갔더니 백작의 딸 올리비아가 남장한 바이올라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어버린다. 그렇게 십이야의 네 사람의 복잡하게 얽힌 사랑 이야기가 시작된다.	(오)962 (운)390

<p>2021. 5. 21(금) 야외공연장</p>	<p>금요예술무대 “환타스틱스”</p>	<p>예술감독 : 강량원</p> <p>*출연진* 서좌백 강주희 강성숙 이수정 서창희 이규호 (객원연주: 한철중)</p> <p>*스텝* 음악 편곡 및 지도 : 한철중 소품제작 : 윤미연 음향 : 김현산 분장 : 이지연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판타스틱스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일곱이다. 이웃사촌간의 두 명의 엄마 그리고 이들의 자녀인 마트와 루이자 그리고 이 극의 진행자인 엘갈로, 극중극 인물로 헨리와 머티머가 등장한다.</p> <p>두 엄마들은 마트와 루이자를 결혼시키려고 계획을 꾸미고 이들이 일부러 원수지간인 척 행세를 하여 아들딸들의 가슴에 더욱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유도한다.</p> <p>그런 와중에도 부모를 피해가며 이들의 만남은 계속된다.</p> <p>엄마들은 이들의 사랑에 불꽃을 피우기 위해 유괴전문가 엘갈로를 고용하여 마트가 보는 앞에서 루이자를 유괴하는 연극을 꾸미고 그 와중에 마트가 루이자를 구출하게끔 만든다.</p> <p>이를 기회로 두 집안은 화해를 하고 결혼을 유도하지만 부모들의 위선이 드러나고 연인들의 사이도 소원하게 된다.</p> <p>결국 마트와 루이자는 환상이 아닌 현실 속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 고통을 맛보게 되고 마트는 세상의 어려움을, 루이자는 기다림의 인내를 배우게 된다.</p> <p>마트가 세상에 나가서 온갖 고생 끝에 진실된 마음을 찾고 돌아오게 되자 루이자도 환상에서 깨어난 여인으로 탈바꿈하고 결국은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해피엔딩으로 막이 내린다.</p>	<p>100</p>
---------------------------------	---------------------------	---	--	------------

<p>2021. 6. 4(금) 야외공연장</p>	<p>금요예술무대 “환타스틱스”</p>	<p>예술감독 : 강량원</p> <p>*출연진* 서좌백 강주희 강성숙 이수정 서창희 이규호 (객원연주: 한철중)</p> <p>*스텝* 음악 편곡 및 지도 : 한철중 소품제작 : 윤미연 음향 : 김현산 분장 : 이지연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판타스틱스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일곱이다. 이웃사촌간의 두 명의 엄마 그리고 이들의 자녀인 마트와 루이자 그리고 이 극의 진행자인 엘갈로, 극중극 인물로 헨리와 머티머가 등장한다.</p> <p>두 엄마들은 마트와 루이자를 결혼시키려고 계획을 꾸미고 이들이 일부러 원수지간인 척 행세를 하여 아들딸들의 가슴에 더욱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유도한다.</p> <p>그런 와중에도 부모를 피해가며 이들의 만남은 계속된다.</p> <p>엄마들은 이들의 사랑에 불꽃을 피우기 위해 유괴전문가 엘갈로를 고용하여 마트가 보는 앞에서 루이자를 유괴하는 연극을 꾸미고 그 와중에 마트가 루이자를 구출하게끔 만든다.</p> <p>이를 기회로 두 집안은 화해를 하고 결혼을 유도하지만 부모들의 위선이 드러나고 연인들의 사이도 소원하게 된다.</p> <p>결국 마트와 루이자는 환상이 아닌 현실 속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 고통을 맛보게 되고 마트는 세상의 어려움을, 루이자는 기다림의 인내를 배우게 된다.</p> <p>마트가 세상에 나가서 온갖 고생 끝에 진실된 마음을 찾고 돌아오게 되자 루이자도 환상에서 깨어난 여인으로 탈바꿈하고 결국은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해피엔딩으로 막이 내린다.</p>	<p>110</p>
--------------------------------	---------------------------	---	--	------------

<p>2021.10.2.(토) ~10.3.(일) 회관 유튜브 극단 유튜브 온라인 상영</p>	<p>제83회 정기공연 “어느 날 난민”</p>	<p>원작 : 표명희 각색 : 이오진 연출 : 강량원</p> <p>*출연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태훈 송예은 이수정 서창희 김희원 황혜원 권순정 이규호</p> <p>*스텝* 무대디자이너 : 임일진 작곡 : 김현기(움브레) 안무 : 금배섭 조명디자이너 : 최보운 의상디자이너 : 오수현 소품디자이너 : 윤미연 분장디자이너 : 이지연 홍보영상 : 박태준 영상디자이너 : 김성하 음향감독 : 김현산 포스터 일러스트 : 홍예진 홍보디자이너 : 디자인컴퍼니 사진촬영 : 유재형 조연출 : 최태용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해나는 민이를 데리고 영종도에 오게 된다. 영종도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는 들어섰지만 아직 거의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령도시이다. 민이는 우연히 ‘난민지원센터’에서 살게 되고 해나는 골프장 캐디로 일하면서 민이와 함께 살게 될 미래를 꿈꾼다.</p> <p>난민지원센터에는 수많은 나라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다.</p> <p>뚜앙은 국적이 없어 메콩강 물 위에서 살다 한국에 들어 온 난민 신청자이다. 찬드라는 인도의 명예살인의 피해자로, 다른 계급의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는 사실 때문에 친오빠들에게 살해당할 뻔하다가 마을 여자아이의 신고로 목숨을 부지하고 한국으로 도망 왔다. 위구르족 남편 모이샤와 한족 아내 옥란 역시, 과거 모이샤의 소수민족 운동 전력으로 인해 핍박 받다가 아들인 샤샤와 함께 난민 자격을 얻고자 한국에 왔다. 미셀과 웅가는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어 교사로 일하다가 부족장 딸과 사랑에 빠져 파리로 추방당했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지원센터의 분위기 메이커이다. 주여사는 이들에게 매일같이 따뜻한 밥을 먹이는 식당 주방장이다.</p> <p>어느 새 가족처럼 다정해진 난민 센터 사람들 사이에는 결국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들과 거부당한 이들 사이의 벽이 세워진다. 찬드라는 난민신청이 인정되어 난민 지원센터를 떠났고, 뚜앙은 난민 신청이 거절되고 그 날 저녁 자신의 방에서 목을 맨다. 난민센터의 모든 사람들은 함께 뚜앙의 뼈를 영종도 바다에 뿌리면서 아침 해가 떠오르길 기도한다.</p>	<p>(은)1,791</p>
---	--------------------------------	--	---	-----------------

<p>2021.11.27.(토) ~12.5.(일) 소공연장 / 8회</p>	<p>제84회 정기공연 “갈매기”</p>	<p>원작 : 안톤 체호프 번역 : 김종원 윤색 : 김민정 연출 : 이성열 예술감독 : 강량원</p> <p>*출연진* 이범우 심영민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태훈 송예은 황혜원 권순정 이규호</p> <p>*스텝* 드라마터그 : 조만수 무대디자인 : 이태섭 조명디자인 : 김창기 의상디자인 : 이수원 음악 : 장영규 분장디자인 : 이동민 소품디자인 : 김혜지 기술감독 : 이우천 홍보디자인 : 노운</p> <p>공연영상 : 남인천방송</p> <p>사진촬영 : 유재형 조연출 : 안미빈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뜨레블레프는 자신의 연인인 니나가 어머니 아르까지나의 애인인 소설가 프리고린에게 빠지자 권총자살을 시도하지만 미수에 그친다. 아들의 권총자살이 질투 때문임을 알게 된 아르까지나는 애인인 프리고린을 데리고 떠나고자 한다. 그러나 프리고린은 시골의 순수하고 맑은 처녀 니나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고 니나 역시 배우가 되고자 모스크바로 떠나면서 프리고린과 연인 사이가 된다.</p> <p>2년 후. 뜨레블레프의 삼촌 소린의 병세가 악화되자 아르까지나는 오빠의 병세를 살피기 위해 애인인 프리고린과 고향을 찾는다. 지난 2년동안 프리고린에게 철저히 파멸되고 지금 고향에 와있는 니나를 생각하며 뜨레블레프는 프리고린에게 적대감을 갖는다.</p> <p>이때, 만신창이가 된 니나가 뜨레블레프의 집을 찾아 자신은 아직도 프리고린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뜨레블레프에게 던지고 충격을 받은 뜨레블레프는 권총 자살을 한다.</p>	<p>(오)1,069</p>
---	----------------------------	---	--	-----------------

※ 정기공연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계	3건 / 16회 / 온라인상영 2회			4,212명 (오)2,031 (은)2,181
<p>2021.4.3.(토) ~4.11.(일) 소공연장 / 8회</p> <p>2021.5.1.(토) ~5.2.(일) 회관 유튜브 극단 유튜브 온라인 상영</p>	<p>제82회 정기공연 “십이야”</p>	<p>원작 : 셰익스피어 연출 : 임도완 예술감독 : 강량원</p> <p>*출연진* 서좌백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태훈 이수정 서창희 김희원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스텝* 무대디자인 : 정승호 조명디자인 : 나한수 의상디자인 : 이주희 영상디자인 : 이수경 음악감독 : 김요찬 소품디자인 : 김소연 음향감독 : 유정화 분장디자인 : 채송화 홍보디자인 : 디자인컴퍼니 공연영상 : 남인천방송 사진촬영 : 유재형 조연출 : 박제영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외모까지 매우 비슷한 남매 쌍둥이인 세바스찬과 바이올라는, 같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나 배가 난파된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일리리아라는 땅의 해안 각기 다른 장소에 떠밀려 겨우 목숨을 건진다. 두 사람은 서로 오빠와 여동생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하며 큰 슬픔에 빠진다.</p> <p>여동생 바이올라는 신분을 숨기고 세자리오라는 남자로 변장한다. 그리고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오시노공작의 하인으로 들어가 빠르게 신임을 얻게 된다. 오빠 세바스찬 또한 가문 사이에 친분이 있는 오시노 공작의 집으로 향한다, 여동생이 남장을 하고 시종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p> <p>오시노 공작은 그 마을 백작의 딸 올리비아를 몹시 사랑하여 청혼하지만 매번 거절당한다. 공작은 갓 들어온 시종 바이올라를 매우 신임하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데, 이는 여자처럼 생긴 예쁘장한 청년이라 호감이 갔고, 그의 훌륭한 언행이 믿음직하고 맘에 들었기 때문이다. 공작은 그러한 바이올라가 청혼심부름을 하는데 적격이라 생각하고 백작의 딸에게 심부름을 보낸다. 그러나 바이올라는 거꾸로 오시노 공작을 첫눈에 사랑하게 되어서, 공작의 청혼심부름을 하는 것이 매우 괴롭기만 하다. 설상가상으로 심부름을 갔더니 백작의 딸 올리비아가 남장한 바이올라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어버린다. 그렇게 십이야의 네 사람의 복잡하게 얽힌 사랑 이야기가 시작된다.</p>	<p>1,352</p> <p>(오)962</p> <p>(은)390</p>

<p>2021.10.2.(토) ~10.3.(일) 회관 유튜브 극단 유튜브 온라인 상영</p>	<p>제83회 정기공연 “어느 날 난민”</p>	<p>원작 : 표명희 각색 : 이오진 연출 : 강량원</p> <p>*출연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태훈 송예은 이수정 서창희 김희원 황혜원 권순정 이규호</p> <p>*스텝* 무대디자인 : 임일진 작곡 : 김헌기(움브레) 안무 : 금배섭 조명디자인 : 최보윤 의상디자인 : 오수현 소품디자인 : 윤미연 분장디자인 : 이지연 홍보영상 : 박태준 영상디자인 : 김성하 음향감독 : 김현산 포스터 일러스트 : 홍예진 홍보디자인 : 디자인컴퍼니 사진촬영 : 유재형 조연출 : 최태용</p> <p>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해나는 민이를 데리고 영종도에 오게 된다. 영종도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는 들어섰지만 아직 거의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령도시이다. 민이는 우연히 ‘난민지원센터’에서 살게 되고 해나는 골프장 캐디로 일하면서 민이와 함께 살게 될 미래를 꿈꾼다.</p> <p>난민지원센터에는 수많은 나라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다.</p> <p>뚜앙은 국적이 없어 메콩강 물 위에서 살다 한국에 들어 온 난민 신청자이다. 찬드라는 인도의 명예살인의 피해자로, 다른 계급의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는 사실 때문에 친오빠들에게 살해당할 뻔하다가 마을 여자 아이의 신고로 목숨을 부지하고 한국으로 도망 왔다. 위구르족 남편 모이샤와 한족 아내 옥란 역시, 과거 모이샤의 소수민족 운동 전력으로 인해 핍박받다가 아들인 샤샤와 함께 난민 자격을 얻고자 한국에 왔다. 미셀과 웅가는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어 교사로 일하다가 부족장 딸과 사랑에 빠져 파리로 추방당했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지원센터의 분위기 메이커이다. 주여사는 이들에게 매일같이 따뜻한 밥을 먹이는 식당 주방장이다.</p> <p>어느 새 가족처럼 다정해진 난민 센터 사람들 사이에는 결국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들과 거부당한 이들 사이의 벽이 세워진다. 찬드라는 난민 신청이 인정되어 난민 지원센터를 떠났고, 뚜앙은 난민 신청이 거절되고 그 날 저녁 자신의 방에서 목을 맨다. 난민센터의 모든 사람들은 함께 뚜앙의 뼈를 영종도 바다에 뿌리면서 아침 해가 떠오르길 기도한다.</p>	<p>(온)1,791</p>
---	--------------------------------	--	--	-----------------

<p>2021.11.27.(토) ~12.5.(일) 소공연장 / 8회</p>	<p>제84회 정기공연 “갈매기”</p>	<p>원작 : 안톤 체호프 번역 : 김종원 윤색 : 김민정 연출 : 이성열 예술감독 : 강량원</p> <p>*출연진* 이범우 심영민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태훈 송예은 황혜원 권순정 이규호</p> <p>*스텝* 드라마터그 : 조만수 무대디자인 : 이태섭 조명디자인 : 김창기 의상디자인 : 이수원 음악 : 장영규 분장디자인 : 이동민 소품디자인 : 김혜지 기술감독 : 이우천 홍보디자인 : 노운 공연영상 : 남인천방송 사진촬영 : 유재형 조연출 : 안미빈</p> <p>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프레블레프는 자신의 연인인 니나가 어머니 아르까지나의 애인인 소설가 프리고린에게 빠지자 권총자살을 시도하지만 미수에 그친다. 아들의 권총 자살이 질투 때문임을 알게 된 아르까지나는 애인인 프리고린을 데리고 떠나고자 한다. 그러나 프리고린은 시골의 순수하고 맑은 처녀 니나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고 니나 역시 배우가 되고자 모스크바로 떠나면서 프리고린과 연인 사이가 된다.</p> <p>2년 후. 프레블레프의 삼촌 소린의 병세가 악화되자 아르까지나는 오빠의 병세를 살피기 위해 애인인 프리고린과 고향을 찾는다. 지난 2년동안 프리고린에게 철저하게 파멸되고 지금 고향에 와있는 니나를 생각하며 프레블레프는 프리고린에게 적대감을 갖는다.</p> <p>이때, 만신창이가 된 니나가 프레블레프의 집을 찾아 자신은 아직도 프리고린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프레블레프에게 던지고 충격을 받은 프레블레프는 권총 자살을 한다.</p>	<p>(오)1,069</p>
---	----------------------------	--	--	-----------------

* 기획공연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계	2건 / 2회			210명
2021. 5. 21(금) 야외공연장	금요일예술무대 “환타스틱스”	<p>예술감독 : 강량원</p> <p>*출연진* 서좌백 강주희 강성숙 이수정 서창희 이규호 (객원연주: 한철중)</p> <p>*스텝* 음악 편곡 및 지도 : 한철중 소품제작 : 윤미연 음향 : 김현산 분장 : 이지연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판타스틱스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일곱이다. 이웃사촌간의 두 명의 엄마 그리고 이들의 자녀인 마트와 루이자 그리고 이 극의 진행자인 엘갈로, 극중극 인물로 헨리와 머티머가 등장한다.</p> <p>두 엄마들은 마트와 루이자를 결혼시키려고 계획을 꾸미고 이들이 일부러 원수지간인 척 행세를 하여 아들딸들의 가슴에 더욱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유도한다.</p> <p>그런 와중에도 부모를 피해가며 이들의 만남은 계속된다.</p> <p>엄마들은 이들의 사랑에 불꽃을 피우기 위해 유괴전문가 엘갈로를 고용하여 마트가 보는 앞에서 루이자를 유괴하는 연극을 꾸미고 그 와중에 마트가 루이자를 구출하게끔 만든다.</p> <p>이를 기회로 두 집안은 화해를 하고 결혼을 유도하지만 부모들의 위선이 드러나고 연인들의 사이도 소원하게 된다.</p> <p>결국 마트와 루이자는 환상이 아닌 현실 속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 고통을 맛보게 되고 마트는 세상의 어려움을, 루이자는 기다림의 인내를 배우게 된다.</p> <p>마트가 세상에 나가서 온갖 고생 끝에 진실된 마음을 찾고 돌아오게 되자 루이자도 환상에서 깨어난 여인으로 탈바꿈하고 결국은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해피엔딩으로 막이 내린다.</p>	100

<p>2021. 6. 4(금) 야외공연장</p>	<p>금요예술무대 “환타스틱스”</p>	<p>예술감독 : 강량원</p> <p>*출연진* 서좌백 강주희 강성숙 이수정 서창희 이규호 (객원연주: 한철중)</p> <p>*스텝* 음악 편곡 및 지도 : 한철중 소품제작 : 윤미연 음향 : 김현산 분장 : 이지연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판타스틱스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일곱이다. 이웃사촌간의 두 명의 엄마 그리고 이들의 자녀인 마트와 루이자 그리고 이 극의 진행자인 엘갈로, 극중극 인물로 헨리와 머티머가 등장한다.</p> <p>두 엄마들은 마트와 루이자를 결혼시키려고 계획을 꾸미고 이들이 일부러 원수지간인 척 행세를 하여 아들딸들의 가슴에 더욱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유도한다.</p> <p>그런 와중에도 부모를 피해가며 이들의 만남은 계속된다.</p> <p>엄마들은 이들의 사랑에 불꽃을 피우기 위해 유괴전문가 엘갈로를 고용하여 마트가 보는 앞에서 루이자를 유괴하는 연극을 꾸미고 그 와중에 마트가 루이자를 구출하게끔 만든다.</p> <p>이를 기회로 두 집안은 화해를 하고 결혼을 유도하지만 부모들의 위선이 드러나고 연인들의 사이도 소원하게 된다.</p> <p>결국 마트와 루이자는 환상이 아닌 현실 속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 고통을 맛보게 되고 마트는 세상의 어려움을, 루이자는 기다림의 인내를 배우게 된다.</p> <p>마트가 세상에 나가서 온갖 고생 끝에 진실된 마음을 찾고 돌아오게 되자 루이자도 환상에서 깨어난 여인으로 탈바꿈하고 결국은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해피엔딩으로 막이 내린다.</p>	<p>110</p>
--------------------------------	---------------------------	---	--	------------

시립극단 단원명단

단 무 장 : 김화산

사 무 : 이옥희, 이돈형

수 석 : 이범우, 강주희

제1차석 : 김세경, 정순미, 서창희

제2차석 : 김현준, 최진영, 강성숙

상임단원 : 차광영, 심영민, 김문정, 김태훈, 이수정, 송예은,
김희원,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

※ 2021년 12월 31일 기준